

# 문고본 출판에 부활의 기미 보이는가

## 몇몇 출판사 새로운 시도로 기대 섞인 전망 낱아... 활성화되기까진 난관 수두룩

문고본 시대는 다시 오려는가. 최근 출판가에는 지난 60, 70년대 화려하게 개화했다 좀처럼 부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문고본의 새로운 개화를 전파하는 '기대'들이 조심스럽게 고개 들고 있다. 문고 하면 으레 명저·명작이 떠올려진다면 최근 문고본들은 실용·정보 중심의 가벼운 내용에다 '핸디북' '포켓북' 형태의 참신한 모습으로 점두에 얼굴을 내밀고 있어 그런 전망의 단서 구실을 한다.

그 전망의 논리들은 매우 조심스럽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는 과학적 분석들은 낙관적이지도 그렇다고 아주 비관적이지도 않은 결론을 보인다. 하지만 '희망'의 낙관론과 '현실'의 비관론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출판인들의 예년없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 "부활의 기미가 보인다"고 출판계 주위에서 운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범우사 재개, 등지·평화 첫선, 김영사 고려중

문고본의 부활을 엿보이는 최근 사례들은 의외로 많다. 앞서 지적됐듯 '문고본=고전'이란 등식을 물론 많이 벗어나 있다. 흥미로운 사례부터 하나 들여보자면 지난 4월 창간한 월간 「미스터리 매거진」은 별책부록으로 10.5×15센티의 손아귀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문고본 추리소설(「살인 곱하기 다섯(로버트 콜비)」을 펴냈다. 삐삐·핸드폰 이용법을 소개한 「좋은 아침 삐삐 약어집(좋은아침)도 종래의 문고본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X세대 문고본'에 속한다 하겠다.

과거 문고본으로 유명했던 출판사가 '재개'를 선언한 곳도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단행본 문고본 「현암선서」를 펴냈던 현암사는 최근 문고본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며 11×20.8센티의 정보서 「시사 트렌드」를 펴냈다.

범우사도 최근 통권 110권까지 기록했다가 4년간 주춤해 왔던 '범우문고'를 다시 펴내기 시작했다. 독자들에게는 「무서록」(이태준), 「무소유」(법정), 「근원수필」(김용준) 등의 빼어난 산문집과 명작·명저의 문고시리즈로 인상깊었던 이 '범우문고'는 최근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논쟁」, 이인로의 「파한집」 등 5권을 동시출간, 재개를 시작했다. 앞으로 매달 5권씩 펴낼 예정으로 동서고금의 고전에서 서부터 野史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

등지출판사의 문고본 시장 입성은 "문고본

시대는 다시 올 것"이라는 편집자들 사이의 팽배한 인식 속에서도 "누가 과연 먼저 총대를 메느냐"며 눈치를 보고 있던 가운데 가장 빨리 시범적으로 터져나온 문고시리즈여서 출판가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FOR LIFE'란 이름의 이 시리즈에는 「반짝이는 생활의 지혜를」 「마이카 시대의 오너드라이버」 「내손으로 가꾸는 늘 푸른 우리집」 「맛벌이 부부의 성공학」 등 그야말로 생활·실용정보만을 담았는데, 모두 60권으로 기획, 현재 15권이 나와 있다. 산악도서 전문출판사인 평화출판사도 최근 문고본 출판에 돌입했다. (본지 153호 참조)

진지하게 검토중인 출판사도 더러 있다. 김영사의 최봉수 편집장은 "우리도 문고본을 검토했으나 워낙 독자취향이 완고한 데다 일선 서점들도 디스플레이에 인색한 형편이라 망설여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문고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사에서 검토중인 문고본의 내용은 자동차·이혼·보험 등 그곳도 역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서들이다.

이밖에도 열린길이 신국판과 문고본 두 종류로 「드래곤 랜드」를 내놓았고, 홍익, 고려원 등에서도 청소년·일반 대상의 문고본을 펴내고 있어 문고본은 사실상 소리소문없이 서점가에 상륙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새로운 조짐을 만들며 몇몇 문고본들이 야심있게 서점가로 입성하지만 "서점측의 노골적인 홀대"와 독자를 사로잡을 만한 기획물이 보이지 않는 탓인지 판매는 "기대이하"이다. 다시말해, 출판사들이 "문고본은 분명히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입각해서 "90년대말의 문고본 붐을 일으킬 초석을 지금부터 놓는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등지의 유승준 기획팀장은 "이 시리즈의 시장성에 대해 출판사들의 문의전화가 의외로 많았다"며, "독자들의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다른 출판사들에서 많이 뛰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출판사 편집자들은 문고본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영업부 쪽의 반대에 밀려 생각만 많을 뿐 실천에 못 옮기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부 직원들은 "독자분석을 해보면 시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유통이 획일화돼 있는 현재로서는 서점이 깔아주지 않는 이상 팔 도리가 없다"며 편집부의 문고기획을 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 서점가에는 이처럼 새로로나 문고본말고도 을유, 탐구당, 서문문고 등의 문고본의

**출판사 편집자들은 문고본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영업부쪽의 반대에 밀려 생각만 많을 뿐 실천에 못 옮기고 있는 듯 보인다. 영업부 직원들은 "독자분석을 해보면 시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유통이 획일화돼 있는 현재로서는 서점이 깔아주지 않는 이상 팔 도리가 없다"며 문고 기획을 저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출간된 몇몇 문고본들. 하지만 서점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고전들이 진열돼 있고, 열화당 미술문고, 전과과학사의 블루백서, 고려원의 소설문고 범우·문예 등의 교양문고, 이화여대 서술대 등의 대학출판부의 문고본 등도 계속 판매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중원사의 우화시리즈, 앞선책의 역사시리즈, 한국경제신문사의 EM문고 등이 절판된 채로 혹은 계속 간행하며 미미하나마 한국문고본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빛깔있는 책들과 EM문고 정도.

이들 외에 최근 나온 문고 신간들을 서점에서 찾아보려면 매우 어렵다. 시리즈로 나왔더라도 문고본 코너를 서점에서 따로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3권은 경제서, 2권은 여성, 또 몇권은 취미서 이런 식으로 서가에 분류되고, 분류돼 꽃힌 책은 크기가 작다고 또다시 맨 구석에 가 꽂히기 일쑤여서 독자에게 띄기란 정말 어렵게 돼 있는 것이 문고본의 서점입성 이후의 현실이다. 종로서적 업무과 감남식 계장은 "문고는 진열하기도 나쁜 데다 매장 면적은 좁은데 하루 들어오는 총 신간종수는 6, 70종, 물량도 많지 않은 문고본 코너를 그렇다고 따로 만들 수도 없다"고 서점측의 애로사항을 말했다.

지금은 이렇지만, "머잖아 상황은 달라지리라"는 것이 출판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출판인·출판학자들이 문고본의 '개화'를 낙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광주대 출판광고학과 오경호 교수는 출판시장개방을 문고본

시장의 호기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문고매체가 그 영업성의 결여로 외면당해 왔지만, 출판시장이 개방되면 유통방법의 획기적 변화로 서점과 가판, 문구점,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외국 및 국내 문고본이 범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우려되는 점은 "특정국의 대중문화 매체인 문고본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펄링과 속도, 쾌감과 사운드가 들어 있는데, 이전의 문고본과 같이 그저 평범하고 답답한 느낌의 우리 문고는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점.

출판인들의 기대는 지하철이 완전개통되는 90년대말에 쏠려 있다. 한 원로출판인은 "전차를 타고 다녔던 학생시절 문고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책이 커서 들고 있는 걸 보면 불편해 보이더라"고 말한다. "뉴욕이나 동경, 파리 등 지하철이 발달된 어느 나라든 콩나물시루이긴 마찬가지고 지저분하기로 치자면 더하다"며 "샐러리맨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출퇴근의 지하철 안이 유일"한데, 우리도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하는 지금과 같은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90년대말이면 지하철 독서인구는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문고본 형태의 책에 대한 독자요구 높아

출판사들의 망설임과 유통의 난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측은 독자들인 것 같다. 출판사들의 시장조사 자료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듣는 독자들의 문고본에 요구는 매우 높은 편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신혜선(주부

·31)씨는 육아와 일로 빠듯한 일과속에서 차분히 앉아 책을 읽는 '호사'는 아예 포기했는데, 지하철이나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는 틈새 시간이 그가 마음놓고 책을 읽는 '유일한' 시간이다. 일하는 주부들의 공통된 특성인 '무거운' 가방은 책 한 권의 무게조차도 때로 버겁게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 신문이나 시사 주간지를 사서 읽고는 내리면서 버리는 읽기 습관이 자신도 모른 새 몸에 배어버렸다는 것.

신씨는 문고본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참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글을 쓰는 그는 신간 문예물은 물론 미래학서나 신간 이론서의 독서를 절실히 느끼는데, 이런 책이 문고본의 소재자로 분절되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다. 하드커버에 500여페이지에 이르는 15.2×20.8센티(A5신)의 「제3의 물결」을 가방속에 넣어다니며 그것을 틈날 때마다 꺼내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은 "실용·정보 중심의 최근 문고 경향도 좋겠지만, 그보다 예전의 삼중당문고나 을유문고와 같은 고전이나 명저의 문고본이 내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3박4일의 여름휴가를 지리산으로 다녀왔던 강정숙(28)씨는 별 기대없이 넣고간 두 권의 문고본으로 휴가가 훨씬 더 의미있었다고 말한다. 작년 휴가때도 차 안에서 읽을 요량으로 단행본 한 권과 문예계간지를 넣고 갔는데, 문예지는 손도 못대고 온 것. 올해는 서점에 갔다가 평화출판사에서 펴낸 문고판 산악에세이가 있길래 산에 가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 권을 사왔는데, 특특히 그 덕을 본 것이다. 서울역에서 남원까지의 왕복 8시간, 그리고 산행길의 틈새시간을 10분~20분씩 이용했는데, 그 두 권은 물론 잡지·신문까지 여러종 독파할 수 있었다. 그는 작년 일을 떠올리며 "아무리 자투리 시간이 있었더라도 일반 단행본 크기였다면 배낭에서 그렇게 자주 꺼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휴대 간편한 문고본의 다양한 출판물 강령히 기대했다.

#### 문고본이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문고본의 새로운 만개를 기대하는 것은 몇몇 독자, 몇몇 뜻있는 출판인들만의 희망사항은 아닐 것이다. 출판인들은 문고본이 개화를 맞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한다. 즉, 문고는 기간 내용의 단순한 리바이벌이 아닌 출판사의 창의성이 담긴 기획물

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 소형의 값싼 책, 경장본이라는 관념으로 편집을 홀시·홀대하지 않는 그야말로 기획의 창의적 모험과 편집적 발상이 소담하게 담긴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발달된 문고본이 들어오면 지금의 구태로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문고본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문고본은 널리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출판사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급·배포면에서도 서점 중심의 보급이 아니라 휴게실, 약국, 터미널, 지하철, 가판대, 슈퍼 등 독자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셋째, 문고는 언제 어디를 가든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독자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 문고는 우수한 작품을 그 크기나 종이 질이 작아도 판형에 담은 것일 뿐 그것이 내용을 다 이체스트했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 다이제스트·축약해서도 안된다. 또한 독자가 전문지식과 전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한때 서울출판유통 정기산행에서 "배낭 속에 책 한 권을" 같은 캠페인을 벌였듯 국민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작은 문고본이라 하여 편집에 들이는 노력이 작아서는 안된다. 문고에 맞는 편집적 발상을 하여야 하는데, 가령, 문고라 하여 원문이나 주를 삭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며, 레이아웃 요소들을 점검하여 지면의 가독성을 높이는 일, 판면의 다양한 구성 등이 요구된다. 즉, 표지의 조화미, 제책의 형태미로 이끄는 장정 등 쉼터나 스타일, 디자인 등을 생각 문고의 품격을 높여 매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컴퓨터 기술의 활용으로 소형의 경장본을 만들고 이어 그것의 판형을 키워 중장본을 만들어 이중의 시장에 도서를 공급할 수 있는 원가절감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경제적 시도도 해볼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서 대중화의 목적에 입각,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획'으로 보급용 책을 만들고 독자결에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유통망을 개발하는 등의 기본요건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최근의 '조짐'은 '문고본의 부활'이라는 그래서 독서의 일상화를 불러오는 거대한 결실을 맺게 될 지도 모른다.

— 정혜옥 기자

# 中國

12억 중국인을 감동시킨, 베이징 사람들의 꿈과 고뇌 그리고 사랑 이야기!

## 황청건 사람들

趙大年·陳建功 著 / 홍광훈 譯

전통과 현대화의  
갈등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중국인의 이야기



정가: 6,000원(상·하 각권)

동아출판사  
☎ 861-4818

당대 최고의 명의 진이탕.  
아내 뱃 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시킨  
데릴사위, 장취안  
경국가수로 성공하지만 사생아를 낳게  
되는 둘째딸 진지.  
현대적 제약시설로 금단을  
생산해내려는 야심가,  
쉬바이센.  
중국 자금성의 작은 골목,  
황청건에서 금단제조의  
비방을 둘러싸고 이들이  
펼치는 갈등과 암투.  
그리고 개혁물결이  
휘몰아치는 현대 베이징의  
세대간 의식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황청건 사람들」—중국현대문학의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SF계 최고상 휴고상과 네블라상을 동시에 수상한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고유작!

## 양자인간

### 너무나도 인간이 되고봤던 200살 로봇의 이야기

과연 인간 또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인간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의문을  
실존적인 화두—  
인간 존재에 대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출판사  
861-4818

지은이:  
아이작 아시모프  
(Isaac Asimov)  
로버트 실버버그  
(Robert Silverberg)  
共著 / 박상준 譯  
정가: 6,000원

